

## 한국인 같은 외국인, 표현에 담긴 문화정치학

해식은 다문화주의의 문제점: MBC every1 <대한외국인>

이은서

### 1. 한국인의 피아식별 장치

재한외국인 2,524,656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4.97%를 차지한다. 단 일민족주의 국가에서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는 오랜 숙원 과제로 남아 있다. 외국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자는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은 매해 심심찮게 시청자를 찾아왔다. <미녀들의 수다>, <다문화 고부열전>, <비정상회담>, <이웃집 찰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개중에는 한국 여행 관찰 예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 문화 체험기를 나누는 점에서는 유사한 맥락이라 본다. 나열된 프로그램과 이 글에서 다룰 <대한외국인>의 공통점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동화주의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만연한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동화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KBS1 〈인간극장〉의 인터넷 밈(meme)인 ‘편견 없는 할아버지’를 한 번쯤은 봤음직하다. 라비 율비가 홍어를 먹은 후 재래시장의 행인과 대화하는 상황이다. “자네 부모가 전라도 사람인가”라 질문한 이를 “편견 없는 할아버지”라 칭하고, 라비는 ‘한국 패치’된 외국인으로 유명하다. 흔히 말하는 “한국 패치”, “한국인 다 됐네” 등의 표현이 유행하지만은 않다. 〈대한외국인〉 분석에서 후술하겠지만, 자국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흡사한 언동을 요구한다.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의 기회를 마치 선심 쓰듯 베푸는 문화정치학적 함의를 가진다. 아이돌 외국인 멤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볶음밥이라거나 공연차 ‘외국’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할 때도 유사하다. “어디 라 씨냐” 물으며 성씨 의식과 본관 제도를 오락적 문법으로 소비한다. “토종 한국인 같다”, “친숙한 모습”, “정감 가는 모습”과 같은 자막으로 재한 외국인의 쾌와 불쾌 경험이 재서사화되고, 동화주의를 친근함의 표시라 착각하게 만든다. 한국식 유머를 이해하고 즐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리해 오히려 외국인과 한국인의 경계를 분명히 할 뿐이다. 국제적 이슈가 한국의 정서와 반할 때는 금세 등을 돌리고 만다. 한국에 얼마나 호의적인가,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한국이다’가 피아식별 장치와 같다.

## 2. 동화주의의 총구가 향하는 곳

MBC every1 〈대한외국인〉 프로그램은 초기에 문제 난이도와 형평성에 의문을 남겼다. 대한외국인 팀의 정답 주위 먹기나 직관적 힌트, 발음의 유사성만으로도 득점하기 등으로 퀴즈 쇼의 의미가 무색했다. 유연한 진행이라는 호평의 뒷면에는 문화나 역사 주체의 시혜적 태도라는 점을 지

을 수 없었다. 프로그램은 기획 의도에 나타나듯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외국인’과 펼치는 한국 문화 퀴즈 쇼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외국인’은 두 가지 대전제를 둔다. 첫째, 한국인과 견주어도 모자람 없는 지식을 갖출 것, 둘째, 한국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겸비할 것. 한국 문화를 퀴즈 대상으로 하여,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다. 세계 3대 팬케이크 중 하나가 파전이라는 정답을 공개한 후에 이어진 대화를 참조한다. 박명수는 대한외국인 팀을 향해 파전을 먹어본 사람 손들어 보라 했고, 이어서 파를 먹는 나라를 물었다. ‘두유 노 김치(Do you know KIMCHI?)’만큼이나 낯은, 자문화중심주의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시청자들은 한국 문화 퀴즈 쇼이니 불가피한 진행이리라 여기고 종종 자문화주의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한다. 우리가 ‘편견 없는 사람’을 자임할수록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맹점을 간과하게 된다. 오랜 단일문화와 단일민족주의의 역사 속에서 재한외국인의 존재는 도전적이었다. 이들의 존재가 사회에 어떤 변화를 끝없이 소구해 왔기 때문이다.<sup>1</sup>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본질적으로 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명제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는, 재한외국인의 적극적 방송 출연으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것처럼 눈속임하고 이들을 교묘히 배제하는 정치성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헤식은 다문화주의는 최근 오취리의 하차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인종적 배타성 없이 살아온 한국인은 블랙페이스 차별에 둔감했다. 그러기에 반성적 사고를 권유한 오취리에게 충구를 겨눴다. 평소 호호를 빌미 삼아 거주국 문화에 존중을 요구함과 동시에 타자의 존재를 부인한 대중은 서로에게 면식범인 셈이다. 주류 문화 이데올로기 속

1 원숙연, 『다문화 사회의 다층성: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정책적 편입과 배제』(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25쪽.

에서 재한외국인과 마주한 것은 끝내 동화주의로 결말을 내렸다.

이 글은 <대한외국인>이 동화주의에 가까워 보인다는 주장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다문화주의의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과도 맞닿는다. 다문화주의는 각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때로는 정책을, 때로는 외국인 당사자를 지칭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다. 문화상대주의, 다원주의와 같은 개념과도 완벽히 분리해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 개념이 지배문화로부터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개념을 체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동화주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요컨대 <대한외국인>은 다문화주의의 변질에 대해 모두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증거다. 이들의 체험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며 비판적 읽기를 제안한다. 한국 문화를 기준으로 각국 패널에게 ‘문화(상품)의 유무’를 묻는 것은 결코 다문화주의라 볼 수 없다. 식사 예절 토크 진행 중 진행자가 각 패널에게 ‘자국에도 물티슈가 있는지’ 물었던 회차를 일례로 든다. 오취리는 고향에서 물티슈를 요구하자 수건에 물을 적셔주었다는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출연진과 함께 웃는다. 고향만의 식사 위생을 이야기하는 대신 ‘없다’는 사실만을 편집함으로써 물티슈가 문화적 우열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그곳 스튜디오, 이곳 대한민국에서 위생품 물티슈가 없는 문화 경험 이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 3. 문화권력과 예능 문법

프로그램이 퀴즈 예능으로서 입지를 다질수록 문제의 정합성에 대한 의 심은 줄어든다. 교양 예능이라는 장르는 그 자체로 교육적이고 정의로운 인상을 주고, 피시한(Political Correctness) 시청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퀴즈쇼의 구성원을 출제자, 대한외국인 팀과 대한민국 팀, 시청자로 분류해 보자. 대한외국인 팀을 제외하고 모두가 한국 문화·주류 집단이다. 대한민국 패널은 물론이거니와 시청자는 국가 대항 경쟁심에 불타오 르거나 오답에 원색적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의 오답으로 자국 문 화가 왜곡될 위험이 없을뿐더러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정당하지 않는 다. 가령 대한민국 팀원이 실점할지라도 한국인임을 의심받겠는가. 오답 을 정정해 무지를 메워줄 대리인(제작자와 자막, 대한민국 팀의 답답한 표정 클로즈업)이 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의 교육을 받은 ‘내’가 맞추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부끄러움 대신 자국 문화가 범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환각을 불러온다. 국보로 지정된 불국사 건축물 네 개를 읊는 퀴 즈가 출제되자 예바는 빠르게 정답을 외쳤고 다른 출연진으로부터 찬사 를 받았다(103회 방송). 박현빈은 재차 예바에게 청운교와 백운교를 묻고, “백운역은 아는데”라며 그의 지식에 감탄했다. 같은 프레임에 담긴 하춘 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경쟁자였던 진성 또한 개쩍은 표정을 지을 뿐 금세 예바의 정답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래 퀴즈의 특징은(특히나 국가 대항전에서) 승부를 가리는 목적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나 <대한외국 인>은 다른 패널의 일명 ‘주워 먹기’에도 무감할뿐더러 반칙 판단 또한 MC의 자율에 맡긴다. 동일한 장면에서 예바가 최근에 불국사 관련 자료 를 번역했던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103회 방송). 문화재 정보가 번역되고 교육자료로 활용된다는 출연자의 개인적 경험이 전파를 타며 문화 위상

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재한외국인을 문화적 변호자로 두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인지 한국 문화는 퀴즈 소재일 뿐인지 명확히 하기 어렵다.

반면 대한외국인 패널에게는 이중적 족쇄가 채워진다. 그들은 자국 국기를 가슴에 단 각국 문화의 대표자이다. 자국의 이미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정정해 줄 공동의 구성원이 부재한다. 타일러가 ‘영어에 존댓말이 없다’는 오해를 직접 다루는 상황처럼 말이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근거로 영어에도 존칭이 있다는 문화적 상식을 전달한다. 게다가 이들은 거주국에 대한 지식으로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득점할지라도 지식의 출처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기에 줄곧 감탄사와 함께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검증하는 토크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팀과 진행자는 기꺼이 나서서 정정하거나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10단계의 허배 교수(알브레히트 후배)는 한국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된 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식 검증에 예외가 없다. ‘맥아더 장군 동상이 세워진 자유공원’이라는 정답을 맞힌 후에 인천상륙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묻는다(93회 방송). 자국 문화 퀴즈 포맷에 대한 민족주의와 자문화중심주의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독특하게도, 대한외국인 패널이 한국 문화권력을 체화하고 있을 때 예능 코드가 된다. K-SOUND 문제였던 충청도 방언 ‘탐새기’가 출제되었다(100회 방송). 추론이 더딘 자신을 책망하는 팀원들을 향해 알파고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답답해요. 저, 충청도 놈이에요”라고 말하자 폭소하는 대한민국 패널들로 카메라가 옮겨 간다. 이 외에도 “옛날에 칠십, 몇 연도”를 회상하는 짐 하버드가 혼분식장려운동을 설명할 때도 같은 맥락이다. 문화권력의 소유자와 한국인의 불일치, 즉 편견에 기인한 예능적 문법이 발견된다.

#### 4. 애국심을 안겨줄 캐릭터

퀴즈의 편향으로 얻어진 문화권력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출연진 캐릭터로 이어진다. 마이클은 미군으로 복무할 당시 한국어 웅변대회에서 수상해 이미 한차례 유명세를 치렀다. 마이클이 “일본아 우기지 마라, 독도는 한국 땅이다”를 외치는 자료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일명 ‘국뽕’ 대열에 합류했다. 그가 <대한외국인>에 출연한 회차에서 훈민정음을 외며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다고 선창하자 양측 패널 모두 입을 모은다(52회 방송). 마이클이 훈민정음을 외고 한글을 좋아하는 것과 한국인이 마이클을 향해 ‘미국 사람 안 같다’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단연 아니라고 답해야만 할 것이다.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역사는 ‘한국 사람 다 됐다’, ‘한국인 같다’ 등을 덕담 문화로 오인하고는 한다. 거주국의 주류 문화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곧 한국인이 되고자 하는 일은 아니다. 위사람이 아랫사람을 인정하는 듯한 위계 관계는 문화 정치학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에 의한 인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한국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 사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또한 지난한 역사 속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에 불과하며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 정체성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수많은 취향과 사실에 점철된 자의적인 성질을 칭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고로 문화와 국적이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졌다.

마이클과 마찬가지로, 사극을 좋아하고 한 대학의 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호다(58회 방송), IMF에 깊은 인상을 받고 유학을 결심한 가브리엘(91회 방송)까지 시청자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서사를 부여해 준다. 이들의 개인적 인상과 경험은 <대한외국인>의 예능 문법 아래 선별되고 한국 문화를 견고히 쌓아 올린다. 스페인의 엘리트였던 가브리

엘이 “금 모으기 운동에 비친 한국의 윤리를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밝힘으로 집단적 기억을 점화한다. 역사 문제와 국제적 이슈에 동조할수록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동질적 정체성으로 친근감을 얻기 쉽다. 이것은 전술한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데, 모리스 알박스의 집단기억이 근거가 된다. 집단 구성원들은 민족의 우상을 기리거나 과거의 사건을 의미화하여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기억이 곧 권력”이라는 알박스의 말마따나 이러한 출연진의 서사는 폭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한 점, 다양성을 의제로 세계적 위상을 가늠한 점에서 매력적이다. 집단적 언어로 봉인된 기억은 즉각적·일상적이며 동시대를 살지 않은 세대에게도 효과적이다. 가브리엘의 개인적 감상이나 결정이 한국의 집단기억인 IMF 당시의 고난과 민족정신을 강화해 호감을 얻는 논리다. 재한외국인의 빠른 배송과 배달 음식, 인터넷 속도에 대한 만족 경험이 한국의 빨리-문화, IT 강국 등에 대한 문화적 간증이 된다면, 다문화주의에서 멀어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 5. 재한외국인에게로 향하는 예음길

한국 사회의 다양성은 예외와 기준이 복잡하다. 탈북민이나 교포에게는 한국어 교육 지원이 되지 않는 점, 재일 동포, 재미 동포가 아닌 ‘재중 동포’는 익숙하지 않은 점 등에서 보듯이 다문화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수많은 존재가 침윤되어 있다. 프로그램들은 외국인 출연진만으로 ‘글로벌’, ‘한류’, ‘다문화’의 술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당신은 다문화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가.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에서도 <대한외국인> 프로그램을 분석할 당위성은 충분했다. 교양 예능으로서 니즈를 반영하며 전 세대를 시청층으로 확보해 왔다. 무엇보다 다양성이라는 의제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재한외국인을 패널로 다양한 삶을 조명해 심리적 거리감을 줄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동시에 <대한외국인>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었고, 문화 존중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할 근거가 된다. 자국 국기가 인쇄된 이름표에 거주 기간을 비롯한 자체적 평가로 등급(단계)이 매겨진다. 한국 거주 기간과 문화 친숙도나 지식이 비례하리라는 사고를 추론할 수 있다. 이 단편적 판단은 재한외국인의 신념이나 태도를 재단할 위험성을 가진다. 학업 목적으로 거주 중인 출연진의 경우 이 기준이 적은 오차로 성립할지라도 비전문직 취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강한데, 시청자는 TV의 상징계와 현실이 근접하다고 느낀다. 출연진들의 능숙한 언어 사용과 높은 상식 수준이 재한외국인에 대한 바로미터일 것이다. 재한외국인을 패널로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사회의 4.97%에게 굴절된 시선과 마주할 필요가 있다. 언어가 익숙지 않은 자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한국의 문화를 모르는 자가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기엔 너무도 먼 에움길을 지나야 한다.